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8/25 월요일****아침의 누림****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요 1:17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전 5:7

7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리지셨기 때문입니다.

고전 10:3-4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는 좋은 땅이다. ...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고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이다. ...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비유했다. 그들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이집트를 떠났고(고전 5:7),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시자 생수를 흘러 보내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었다 (10:3-4).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록은 ... 고린도후서에 있다. 비록 고린도후서는 ‘좋은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책에서 좋은 땅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좋은 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신성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이시다. ...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 합당한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1:12, 4:15, 6:1, 8:1, 9, 9:8, 14,

12:9). 주님의 은혜는 이 책의 중심 사상이며 주제이다. 고린도후서 12 장 9 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0 장, 292-29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근원과 과정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본다. 이러한 흐름의 근원이자 원천은 ... 아버지의 사랑이다. 과정이자 흘러나오는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전달하신 바로 그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근원에서 나온다.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통하고 전해주고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이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순환이 있다. 하나는 우리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피의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이다. 이 두 순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신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이자 영적인 순환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된다. 이것은 전기의 흐름이 도시 전체에 동력을 공급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 몇 년 전에 뉴욕시에 공급되는 전기의 흐름이 얼마 동안 끊겼었다. 그런 일이 발생하자 그 도시의 모든 생활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매우 적절한 예시이다. 우리는 교회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교회생활 전체는 우리 영 안에 전류처럼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에 달려 있다.

많은 때 말씀을 공급하며 말하고 있는 동안 내게는 신성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내적인 느낌이 있다. 내 안에 있는 흐름이 멈춘다면, 내게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할 때 그 영을 놓친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이 차단된다면, 우리가 듣는 것 역시 공허할 것이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말하고 흐름 안에서 들어야 한다. 이 흐름은 성령의 전달이고, 이 전달은 곧 교통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 준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 계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185-1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 서들, 메시지 313;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8/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민 6:24-26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엡 2:7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벧전 1:2

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벧후 1:2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엡 1:6-8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 있는 복은 사실상 민수기 6 장 23 절부터 26 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그 영 자신이다.

민수기 6 장 23 절부터 26 절까지와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의 복은 훌륭한 직업, 좋은 집, 수준 높은 교육, 좋은 가정생활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무엇도 실재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생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실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이시며 몫이시다.(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9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민수기 6 장에 있는 복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24 절)는 아버지와 관련되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5 절)는 아들과 관련되며,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6 절)는 성령과 관련된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밝은 표정을 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지켜지고 은혜를 받으며 평안을 얻는다.

바울의 서신서 중 대부분은 은혜와 평안에 관한 말로 시작한다. 은혜는 아들에게서 오고, 평안은 그 영에게서 온다. 은혜는 다소 객관적이지만 평안은 주관적인데, 그것은

평안이 우리가 누린 은혜의 결과이자 산물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아들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영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가 충만하였다(요 1:1, 14). 우리는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16 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17 절). 이 은혜는 사실상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 평안은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서 평안의 영이 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민수기 6 장에 있는 복은 ...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다.

그분을 복으로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갖고,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안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94, 98-99 쪽)

시편 36 편 8 절과 9 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이 되시는, 신성한 분배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 기름진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신성한 기쁨의 강은

생명수의 강(요 7:37-39, 계 22:1)이신 그 영을, 생명과 빛의 원천(시 36:9)은 생명과 빛(요 1:4, 요일 1:5, 계 21:23, 22:1-2, 5)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그들의 온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즉 원천이신 아버지와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으로 적시고자 하신다. (시 36:8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8/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속 12:10

10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찢었던 이를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를 두고 슬피 울기를 만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할 것이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히 12:28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고후 1:12, 15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5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은혜여야 한다.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는 이들의 체험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아니다. ...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체험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 총체적인 생활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하루 이십사 시간 내내 삼일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르고,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움직인다. 두 영이 한 영이 되고, 두 생명이 함께 살며, 두 본성이 함께 연합된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3 장, 59, 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총체적인 생활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나 다른 어떤 것에 관련된 생활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을 사는 생활이다. 살아 있는 인격을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변화된 사람이 연합된 생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산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상호적인 생활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는 따른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움직이며, 유기체라고 불리는 어떤 상태를 살아 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사상이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진으로서 옛 언약을 위한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이다.

신약 시대에 은혜의 영은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신다. 은혜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얻는 생활이다.

신약 시대의 끝에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집은 회개하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비교 속 12:10).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과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은 연합된 한 영이 된다(롬 8:4 하-6). 이것은 단지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는 것이다.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 둘 다에서, 곧 믿는 이들의 생활과 움직임 둘 다에서, 믿는 이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인성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어, 인성 안으로 오셔서 인성과 하나로 연합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런 다음 삼일 하나님은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과하시고 모든 것을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만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생명 주시는 영을 산출하셨다. 부활 안에 계신 이분은 또한 승천 안으로 들어가시어 출애굽기 30 장 22 절부터 25 절까지에서 거룩한 관유로 예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거룩한 관유는 올리브기름에 향기로운 네 종류의 향료가 복합된 것이다. 이 거룩한 관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 관유이다. 이 관유는 복합되신 영의 예표이며, 이 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인간 생활과 부활과 승천이 있다. 이제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에서 기름바름으로서 날마다 움직이시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도록 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3 장, 69-7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4 장

8/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21-22

21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롬 10:12-13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엡 1:13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 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보다 체험적이다. ... 바울은 그 영께서 기름 바르시는 영과 도장 찍으시는 영이시라고 말한다. 이 영은 또한 보증 곧 미리 맛봄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후 1:21-22).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로 붙이셨으므로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는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다 (시 45:7, 히 1:9).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부어진 관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신성한 성분과 조성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8장, 552-5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이미 붙여졌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붙여졌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기름바름의 양에 달려 있다. ... 우리가 기름바름 아래 살고 일하고 있다면, 이 기름바름은 모든 것에 대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요일 2:27). 이 기름바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여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

백화점에 갈 때 여러분이 내적 기름바름을 주의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선호를 따라 쇼핑을 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 그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님! 저를 이 백화점 안에 있는 사탄적인 체계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좋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 안에서 행한다면 내적 기름바름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여러분은 기름부음 받으신 분께 붙여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 받으신 분께로 붙이시는 것이다. ... 기름 바르시는 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분과 조성 요소, 곧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바르신다. 날마다 우리가 다만 기름바름에 따라 행하고 처신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고 분배되실 것이다.

우리는 기름바름을 받는 것에서 도장 찍히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영은 또한 도장 찍으시는 영이시다. 도장 찍는 것은 신성한 요소들이 형태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격려를 받는다(갈 4:19). 여러분을 접촉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여러분 속에 형상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예전에 상하이에서 어떤 자매가 우리를 방문하러 왔는데, 우리 중 누구도 그녀를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녀를 맞으러 부두로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배에 탄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매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 자매에게는 그녀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어떤 종류의 형상과 인상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셨을 뿐 아니라 도장도 찍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의 형상과 살아 계신 영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셨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영에 대한 보다 깊은 체험이다. 그것은 그 영께서 외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새기시고 도장 찍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1 장 22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보증은 미리 맛봄이다. 그 영은 완전한 맛봄에 대한 미리 맛봄과 보장과 견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입맛에 달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에게서 상속받을 것에 대한 미리 맛봄이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유업을 미리 맛보도록 하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8장, 554-5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8장

8/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3:3, 6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 45:1

1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요 7:38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16:13-15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일 5:16

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쓰시는 영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고후 3:3). 그 영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쓰기 위한 먹이다. 신성한 먹이신 그 영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 안에 쓰이고 계신다는 증거로서, 우리 안에는 항상 살아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영의 쓰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살아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먹,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쓰이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읽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의 쓰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계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8장, 557-558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영께서 날마다 내적으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눠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분배를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살아 있게 한다. 우리가 성경의 문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문자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우리를 규제하시기 때문이다.

유대교 안에 있는 이들은 문자에 따라 기록된 구약의 조항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와서 이 기록된 조항과는 다른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눈이 이 기록된 조항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반대했다. 그들은 너울로 가려져 있었으므로 예수님이나 그 영이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시며, 주님께서 바로 그 영이시다(고후 3:17). 그들은 모든 너울을 벗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기록된 조항에 관한 자신들의 옛 지식을 제거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에 있는 이들이 기록된 성경의 조항에 자신을 가둔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똑같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살아 계신 영이 아니라 성경의 죽이는 조항에 자신들을 가둔다. 우리가 자신을 죽은 문자 즉 외적인 규제에 관한 기록된 조항 아래 가둔다면, 그것은 가련한 것이다. 죽은 문자에 근거한 오래된 교리들에 관한 낡은 지식이라는 이 모든 너울이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한다.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직접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다만 그 영이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살아나게 하며 부흥되게 하고 빛을 비추며 강화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색인 축어 신약(The Concordant Literal New Testament)>은 고린도후서 3 장 6 절을 “그 영은 생생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된다. 말씀을 생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서서히 죽어 가지만, 말씀을 기도하며 읽을 때 우리는 생생하게 된다. 우리가 생생하게 될지 서서히 죽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한 성경 읽기 방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심지어 성경도 죽어 있는 문자에 불과한 조항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명이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생생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기도하여 읽을 때 우리는 생생하게 될 수 있다.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영은 교리의 영이 아니라 실재의 영이시며, 실재의 영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영을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생하게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8 장, 558-559 쪽, 9 장, 5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9 장

8/30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3:8-18 (8-12, 16-18)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9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10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 없어져 가는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길이 남아 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12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13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드리워서,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14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동일한 너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또한 공급하시는 영이시다(비교 고후 3:8). ... 사역이 어떤 사람 안에 산출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지셨기 때문이다. 사역은

여러 해에 걸쳐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처리하시고 건축하시는 것을 통해 산출된다.

일단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다면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풍성해지고 강화되며 높이 올려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조성, 곧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매우 풍성하게 공급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바울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건축되어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이었다. 그의 말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 또한 사역이었다. 사역이 공급하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한다. 그 영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9 장, 567-5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3 장 17 절에 언급된 자유는 율법의 문자로부터, 그리고 너울 아래로부터 해방된 자유이다(갈 2:4, 5:1). 그 영은 우리를 기록된 조항 곧 기록된 규제에서 해방하신다. 유대교도들은 구약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덮는 여러 겹의 너울이 되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는 것이다. ...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비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임재의 새로움 안에서 그 분 자신을 신성하게 얻을 수 있다.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울처럼 그분을 반사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른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 영에게서 비롯된다(고후 3:18).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해방되고 변화된다.

변화는 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고 주님의 새로운 요소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이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다음의 말로 끝맺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13:14) 이 절은 축도하는 말이 아니라 전달이다. 사랑은 근원이자 원천이고, 은혜는 과정이자 샘이며, 교통은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는 강이자 흐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전달자이신 그 영에 의해 은혜로서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온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랑은 은혜 안에 체현된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은혜는 표현된 사랑이다. 은혜는 사랑에서 나오며, 이 은혜는 그 영에 의해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세 가지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세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다. 그 영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전달이시다. 고린도후서는 전달하시고 흐르시는 그 영으로 끝난다.

우리에게는 기름 바르시는 영, 도장 찍으시는 영, 보증하시는 영, 쓰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 공급하시는 영, 자유롭게 하시는 영, 변화시키시는 영, 전달하시고 흐르시는 영이 필요하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9 장, 568-5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0 장

8/31 주일

아침의 누림

롬 5:1-2, 15, 17, 20-21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15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 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6:14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1:14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벧전 3:7

7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벧후 3:18

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